



## 학생들, 학사제도 현행방안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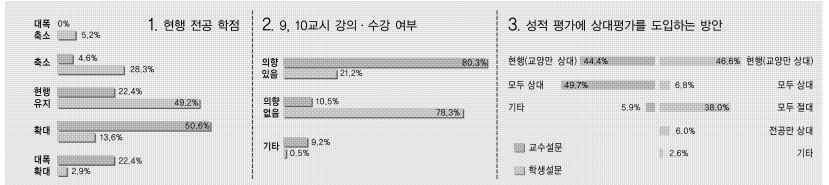
### 전공학점 늘리기보다 강의질 확보 우선 9, 10교시 강의 '수강의향 없음' 대다수

현재 대학당국의 학사제도 개선 움직임에 대해 학생들은 '현행유지'의 입장이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외대학보>가 학사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에 맞춰 학사제도 개선에 대해 학생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낸 결론이다. 서울배움터 학생 102명, 용인배움터 학생 180명 등 총 28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학사제도개선과 관련 교수를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이하 교수설문)에서 정점이 됐지만 학생들에게 민감한 사안들을 선별해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왔다.

현재 전공학점의 최소이수학점에 대해서는 확대하려는 의견이 50.8%였던

교시를 수강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과 저녁시간과 저녁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문제, 오후 활동에 제약받아 개인활동을 접해야한다는 이유로 수강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수강신청의 집중을 받을 수 있고 강의의 부족을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대체로 통학거리나 개인시간 활용을 더 위하여 두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교시를 수강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과 저녁시간과 저녁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문제, 오후 활동에 제약받아 개인활동을 접해야한다는 이유로 수강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수강신청의 집중을 받을 수 있고 강의의 부족을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대체로 통학거리나 개인시간 활용을 더 위하여 두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 서울 기숙사 사용료, 월 25만원으로 결정

### 학생들 '식사제공 없는 25만원 비싸다' 애초 밝혀온 '영어 프로그램' 준비 미흡해

지난 2일, 가공식을 진행한 서울배움터 기숙사는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국내 최고의 기숙사'가 될 것이라고 국내 우수 언론과 본지에 보도해 학내 구성원들의 기대와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서울배움터 학생들의 열원이기도 했던 기숙사가 현재 '교육·환경영향 평가'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4~6개월 정도 늦어진다는 가운데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리야 월과 통상교수권금이 이번 기숙사 건설을 위해 만든 합작 회사

는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일부 대안자들이나 학생들은 등록금이 추가된 기숙사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학교 주변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이석원(사회·정외 00)군은 "재로 신축될 기숙사의 시설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시설이 조금 뒤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싼 쪽을 선호할 것"이라며 기숙사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새로 신축될 기숙사의 비용이 학생들에게 더욱 부담이 되는 것은 다른 야한 '식사제공' 여부다. 용인배움터 기숙사 모현학사의 경우, 학기 당 70만원에 식사까지 제공되고 있으나 서울배움터 기숙사는 월 25만원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식사는 제공되지 않는다.

# 언론본능

사람은 누구나 언론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언론본능, 외대학보사에서 마음껏 펼치십시오.

어떤 제한도, 통제도, 조건도 없습니다. 당신의 날카로운 펜촉 안에만 사천 학우의 알 권리가 달려있습니다.

- 모집대상 : 04학년 새내기
- 모집부서 : 대학부, 사회부, 문화부
- 모집기간 : 9월 14일까지
- 일시접수 : 학생회관 오디학보사 학생기자실
- 면접 : 9월 15일
- 문의 : 02-968-8887 (서울) 031-330-4112 (용인) 011-855-6022 (편집장 김윤호) oedapress@hanmail.net



## 용인 학운위, 지난 2일 열려

용인배움터 확대운영위원회(학운위)가 지난 2일(목) 정보산업공과대학 208호에서 열렸다. 2학기 개강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등록금 누계 결과 보고 △2학기 사업계획서 논의 △새학기인속문화축전(세민전) 준비 현황 △장기시행계획 개정안 발표 △가을제전 조 추첨 △등록금 1% 환불에 대한 입장 표명 등 여러 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확운위에서는 등록금 환불 명칭은 '할발비'로 교수학회는 인정을 재확인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등록금 투정에 대한 결과보고와 평가가 주위에 대한 불만과 평가가 주위에 대한 불만에 대해 학교 측과 협상을 타협해 어릴 수 없이 용인도 1% 환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원종중(사유법·영어 08) 총학생회장은 "앞으로 서울총화와의 긴밀한 학자언대투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서로 간의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일(금) 법대학생회는 예비 05학번 신입생들을 초청, 개강 파티를 진행했다. 김윤호 기자

## 용인, 지난 6월 스쿨버스 전복사고 타이어 노화가 원인으로 추측돼

지난 학기 중장 전발인 6월 17일(목) 오후 3시 40분 용인배움터 학생 45여명을 태운 천호영 스쿨버스가 중부고속도로에서 상행열 끝단터널 가는 길목에서 전복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채 트라제 XG 차량과 충돌 후에 비상도로로 빠졌다"며 "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운전자의 실수가 아니라 타이어 노화로 인해 미끄러진 것 같다"고 전했다.

수습기자 모집은 다음오는 20일(월)에 발행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빈의자

## 관객 모두

▲ '한나라당 의원들의 연기가 극에 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극단 '여의도'는 지난날 28일 전남 곡성군 봉곡리 주민들을 관객으로 연극 '황새'를 올렸다. 연극은 아들 '경재'를 추천성 연양결심 신경근육 비리로 숨지게 한 할머니 '노기라' (노무현 대통령)와 경재를 살려 집안을 일으키려는 현실적인 어머니 '근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대립하며 시종일관 아버지에 비판 아닌 비난을 가한다. 물론, 간간히 할머니 노기라에 대해 유두문자를 쓰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러나 진짜 연극은 다음날부터 펼쳐진다.

▲ 그 다음날인 29일,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 경제·사회적 불안과 위기는 시대에 맞지 않는 빈민주, 반시장 빈민주 세력의 등장에서 기인한다"며 "20년 이후 민주화운동은 빈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빈민주, 반시장 세력이 중심을 이루었고 이는 단순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좌파 반체제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 그런데 그 이튿날인 지난 달 30일에는 말쑥한 모습으로 선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정은 익숙하지 않을 테다. 그리고는 "공주사태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던 부채 의식을 털고 영시의 아픔을 되풀이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연기가 초남 민심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그 연극의 저가자 함으로 관객 모두를 감동시킬 수 없다.

▲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 5·18 묘역 방문은 정치적 의무라 그의 의지다. 그러나 그 행보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르겠다. 참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좌파들의 반체제 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는 바로 그 이튿날 80년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광주 5·18 18일절을 묘역을 경건한 모습으로 참배하는 행보는 거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연극력이 수준급에 달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물'이 오면 연극은 인정하나 더 이상 그것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한정정



# 서울, 주차금지구역 주차 여전

### 한 학기 지났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서울메트로 주차금지 공간에 차들이 주차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신촌북관 완공 후 지하주차장이 생기기 전 연수원과 학동역 사이, 대학원까지의 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주차금지 구역이 됐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주로 도서관 앞과 학생회관 앞, 대학원 쪽의 노란선 부분, 정문부터 운동장을 마주하고 있는 차도만이 주차금지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장소다.



▲ 도서관 앞 연수원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들(여·중·고(사건))과 학원 신촌북관 지하주차장(아래사건)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주차행태에 대해 주차관리를 담당하는 동원안전시스템 직원 김형준 주임은 "주차금지 차이나 매점 관련 차량이 필수 주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 차량은 1회(1부)만 안내를 나눠 주고 공지를 하는 등 계속 일관된 관리가 되지 않았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어 "특히 도서관 앞은 층간별 주차도 있었고 학생들의 공간이고 해서 주차를 막아보려 했지만 편의가 편의를 따져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서관 앞에 주차하는 차량주와 전화 통화 결과 도서관 직원이란 한 사람은 "주차금지를 알고 있지만 신분관까지 가기가 귀찮다. 사람 심기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 교수에게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주차문제에 대해 학생 중 이우(사양·독일어 99)군은 "통행에 상관 없는 곳에는 주차해도 괜찮지 않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진혁(사양·이탈리아어 98)군은 "왔다갔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주차구역이 아니어서 미관상 좋지 못하다"며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권

우일(사양·독일어 99)군은 "교직원들의 차인 것을 감안하면 학생들 공간에 주차하지 말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학생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은정 기자

## 업체 대표가 정문 앞 '공사대금 달라' 시위

지난 1일(수) 서울메트로 정문 앞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 사람이 시위를 벌였다. '위즈빌'이라는 IT 업체의 사장이라고 밝힌 그는 "지난 3월에 끝난 공사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돈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한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일은 신촌북관 강의실에 무선으로 강의의 자재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입한 '무선원격시스템'에서 나오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시작했다. 학교측은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하는데도 시정되지 않은 탓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고 시정각오를 촉구한 다른 업체를 수순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공사 담당자가 바뀌자 "돈을 못 받았다"는 위기감이 시위를 발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건 발생 다음날인 2일(목)이 업체와 이 공사에 관련한 직원들이 모

여 회의를 열어 '위즈빌'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완벽하게 부주해 놓고 공사대금을 받는 날도 합의해 일단락됐다. 업체 선정과정에서 새로 부임한 시정각오원 과장 박배식씨는 "이번에 도입했던 무선원격시스템은 시중에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충분히 검증 받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좀 더 편한 강의 환경을 위해 코엑스 박람회에서도

시스템을 개발해 주문 개발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에 계약해서 3월 개강에 맞추려다보니 충분히 시험해보지 못했고 공사시간이 촉박했던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현재 신촌북관 강의실은 2학기 개강에 맞춰 모든 시스템을 수동으로 바꿔 놓아 강의 진행에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 권은정 기자

### 우리학교, 김제 농민대회 참여

우리학교를 비롯한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은 오는 10일(금) 김제시에서 열리는 '김제 농민 시민대회'와 11일(토) 서울 종로공원에서 열리는 '이정현 열사정신제수, 우리살리기기, 식량주권 수요, WTO DDA 협상반대 국민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에서 열리는 국민대회에는 작년 멕시코 칸쿤에서 농업 개방 반대를 외치며 자결한 이정현 열사를 추모하는 추모제가 진행된다. 임선정 기자

### 서울기숙사 사료료, 월 2만원으로 결정

▶ 1면에서 이어짐  
기숙사는 오는 2007년 신입생들의 입학에 맞춰 완공될 예정이지만 현재, 대학당국의 준비상황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대학당국은 그동안 여러 언론을 통해 "2007년 외대내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전원 기숙사 입사, 체계적인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어 점수로 향상"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영어 프로그램' 준비상황과 관련 기획조정처는 "자금을 원인으로 구성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장려용으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한 것 밖에 다른 조항에 전혀 이의가 없지 않다. 또한, 2007년 신입생들을 전원 입사 시키겠다는 것도 확실한 결정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조정처 관계자는 "기숙사 전입입사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학교의 교육환경을 위해 기획했던 것"이라며 신중이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획조정처는 위 두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통해 보완·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현재까지 '기숙사 운영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대학당국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남신 기획조정처는 "컴퍼스 캠퍼스 수의계약을 한 것은 학교 부당함을 최소화하고 기숙사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면서 "컴퍼스 캠퍼스 이번 기숙사 건설을 위해 미디어 윌과 동아고속건설에서 함께 만든 특수목적에 맞게 설립된 회사(사)로서 실적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기숙사 건립에 들어가는 학교측의 부담여부에 대해 "홍장 명예의 법인 명의로 보증을 한 적은 없다"며 "간접적 컴퍼스 캠퍼스의 모회사인 동아건설고속과 미디어 윌이 잘못될 경우에만 학교에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당국은 컴퍼스 캠퍼스의 계약을 통해 기숙사 건설비용을 시공사 측이 부담하는 대신 운영권을 최대 40년 동안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대 측은 "40년이라는 시간은 건물 수명이나 마찬가지"라며 어떠한 이유에서 40년이라는 기간을 책정했는지 구체적인 근거 재시를 요구했다. 이에 조남신 기획조정처는 "선차적으로 20년 동안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그 후 10년씩 나눠서 계약할 것이며 운영에 하자가 있을시 운영권을 학교로 되돌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기숙사 건설절정에 강하게 의혹제기를 하고 나선 외국인대 측은 "시행사인 컴퍼스 캠퍼스라는 회사가 대학관련 건설 사업이 전부

### 기고 - 영어과 1회 졸업생 최상학 동문, 미국 워싱턴 거주

#### ① 꿈 같은 50년전의 외대를 되돌아보며

우리학교 건립 50주년을 기념해 영어과 1회 졸업생 최상학 동문이 글을 보내 왔다. 당시 학교의 생활상, 디자너스 창간과정, 우리학교 공식 이니셜인 'HFS'의 탄생배경에 대한 글을 3회에 걸쳐 실는다. 권은정

나는 50년 전 1954년 한국외국어대학에 입학하고 4년 후인 1958년 영어과 제1회 졸업생으로 졸업하였다. 졸업 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살다보니 모교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나는 이번 모교창립 50주년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분주하게 발전한 모교를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흥분과 감회를 느꼈다. 일상에 단 한 번 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영광과 특권을 마련해 주신 외대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50년 6·25 동란의 상처가 아물지 못한 당시 20대에 접어들어 나는 나라와 나의 미래를 생각하며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다. 너무나 열악한 현실이었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나의 꿈을 실현해 보려는 욕심과 포부는 매우 강렬하였다. 나는 세계는 나의 목표요 어떤 형태라도간에 국제무대에 진출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모든 일이 뜻이 있어 최선을 다하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 수 있다고 믿었다. 세계를 초월하는 외대인인 세계인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기를 원하고 그 방편으로 꾸준히 노력한 한번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는 그 당시에 믿고 지금도 믿고 믿고 있다.

1954년 4월에 시대에 부응한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한국외국어대학이 탄생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학 교사가 미미 미미되지 않아 우리 54년 입학생들은 동승동의 구 서울대법과대학을 떠나서 입학시험을 치렀다. 그 당시에는 영어과에 부장님분으로부터 통화부, 외교부, 상임부 등 3개부가 있었고 중국어, 독일어, 불

## “ 첫 신입생의 희망과 배움에 찬 얼굴 지금도 생생 ”

란서여, 노사여과가 있었는데 각 과에는 30여명 정도, 총 200여명이 입학했다. 그 당시 전국 각에서 온 신입생들의 얼굴표정을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희망과 배움의 의욕이 찬 얼굴,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는 개척정신, 서로 의지하고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 후배들에게 훌륭한 전승을 남겨주어주었다는 일종의 사명 의식 등, 이 모든 것이 외대개교를 때 1기생들의 모습이었다고 4년 후 졸업할 때 까지 이러한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

나는 외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영어로 대화를 해 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나의 영어 실력은 보장할 수 없었다. 나는 4년 동안 외대 재학시절 배운 영어 실력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 그 당시 타 대학 영어영문학과 출신들과 당당히 실력을 겨룰 수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분명히 영어가 하나의 국제성능으로서 보다 보편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나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고 본다.

나는 일제시대의 잔재를 해방 후에도 계속 담당하고 있는데 바쁜 교사로서의 영어대신 상 영어, 즉 실용성 있는 영어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어영문학과는 대부분 영어로 강의를 들었고 역사와 경제학 등 일반과목도 영어원서를 가지고 공부하였다. 그 당시 회화 수업에서는 모든 과목을 전공 외국어로 강의를 받았던 외국어를 반드시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교수가 없었다. 외국어 원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초빙된 몇몇 외국인 교수들 제외하고는 한국인 교수가 영어원서를 가지고 한국어로 강의를 하였다. 외대에서 미처 제공되지 못한 것은 학생들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나는 학내나 학외에서 많은 데 친구들끼리 미리 약속하고 매우 어수선한 영어 실용 대화를 하면서 영어회화능력을 기렸다. 비록 완전한 이해를 못하면서도 영어원서를 항상 곁에 두고 다니면서 기뻐 할 때 마다 읽었다. 처음에는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졸업할 때는 회화능력이 훨씬 향상되었고 영어문장 이해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나는 교외선교사가 가르치는 Bible school에 나가 성경공부도 열심히 했다. 물론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주 목적이었지만 부산물로 신심상도 깊어졌다. 과외활동의 일환으로 학내에 기독교학생회를 조직하고 매우 수요일 점심시간에 정기적으로 Christian Fellowship 모임을 가졌다. 그 당시 한국어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 비롯해서 주현의공 공관직원과 저명 외국 인사들을 초청해서 설교와 연설을 영어로 들었고 모든 진행을 영어로 했다.

### 바른 캠퍼스 리더

지난 854호 1면 정원호장에 대한 기사에서 '사범대학의 경우, 기존 학과의 인원감축으로 중국어교육과와 일본어교육과를 신설'하고 '사범대학의 경우, 이번 정원호장은 포함되지 않고 2006년 학과신설을 고려중에 있다'로 바로잡습니다.

지난 854호 3면에 실렸던 변경된 정원호장 표를 바로잡습니다.

대학	모집단위	정원호장	
		입학인원	2005모집인원
인문	인문학부(철학)	40	
	인문학부(사학)	40	114
	인문학부(언어인문학과)	40	
	경상계열(영문학과)	40	
	경상계열(영문학과)	49	119
자연과학	수학·정보통계학부(수학)	40	
	수학·정보통계학부(정보통계학)	40	76
	전자공학부(전자공학)	40	38
	환경·생물공학부(환경공학)	50	
	환경·생물공학부(생물공학)	50	144
정보산업공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컴퓨터공학)	60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정보통신공학)	50	105
	전자정보공학부(전자공학)	50	
	전자정보공학부(디지털정보공학)	50	96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50	48

위대학보

# 10월 4일까지

인터넷 수강 등록시 5% 혜택

## Happy 추석 대작전

하나. 파고다가막 10일만 쓴다! (9월 16일(목)~25일(토))

발빠르게 등록하고, 4만 4천원 받자~

10월 강의를 등록하시면 현재 44,000원에 판매중인 nPagoda 동영상 강의 무료쿠폰을 드립니다.

등록기간은 1달간(10월 4일~11월 3일)이며 2일 동안 인원이 한정됩니다.

각 강의 환불시에는 쿠폰을 반납해야하며 쿠폰 분실시 4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됩니다.

두. 파고다가막 4일만 쓴다! (9월 26일(일)~29일(수))

추석에 Pagoda21.com에서 토끼 찾고, 30만원 받자~

추석연휴에 Pagoda21.com에서 10월 강의 등록하고 이벤트를 참여해 주세요.

전부 토끼를 찾으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페달리 포인트가 바로요~ 무단인 토끼인 공방이, 강사지, 패지를 주의하세요!

상등 > 1등 토끼(1명): 페달리 300,000 포인트 (30만원 상당) · 3등 강아지(10명): 페달리 30,000 포인트 (3만원 상당)

· 2등 강아지(5명): 페달리 50,000 포인트 (5만원 상당) · 참가자 돼지(지연): 페달리 3,000 포인트 (3천원 상당)

종로 2274-4000 강남 2051-4000 / 2052-4000 신촌 717-4000 압구정 3442-4000 분당 031)726-4000 부산 서면 051)802-4001

www.pagoda.com

PaGoDa21.com

파고다외국어학원



# '외대 앞'에서만 볼 수 있는 '지구촌 대학문화'

외대 앞, 신촌, 대학로... 모두 흔히 불리는 '대학 문화의 중심지'이다. 그러나 이 세 곳은 다른 독특함을 갖고 있는 곳이 있으나 바로 외국 학생들의 문화가 정착한 '외대 앞'이다. '외대 앞' 중에서도 특히 외국 학생들의 문화 중심지가 되고 있는 '롬비나(LUMBIN)'라는 곳을 찾아가 그곳에 모인 이들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롬비나(LUMBIN)는 '불교의 시조 석가' 탄생한 곳**  
보통 술집에 들어가면 독한 담배 냄새가 진동하게 마련인데 이 곳은 독특한 향으로 가득했다. 아르바이트생이 앉았는 테이블을 보니 하나나 다를까 색색의 아르바이트가 특색을 내며 타고 있었다. 벽마다 걸려있는 신비한 문양의 양탄자와 테이블의 장식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은 모두 '불교'의 이미지를 연상케 했다. 이 곳의 이름은 롬비나(LUMBIN)로 네 팔 남부 태라이 지방에 있는 한 마을을 일컫는 데 불교의 시조 석가가 탄생한 곳이라고 한다. 가계의 이름과 통양적인 실내 분위기가 묘하게 맞아 떨어졌다.

그러나 가게 이름이 롬비나라고 해서 모든 것이 고전적이고 동양적이지만은 않았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게임이 플레이스테이션과 여러 종류의 보드게임, 그리고 한 쪽 귀동이의 책꽂이는 인기 있는 만화책들이 가득했다. 이 곳에서 만난 일본인 나오코(외국어권 수필가인 연수생)는 "많은 외국 학생들이 와요. 일본 학생들은 제일 많고 독일, 캐나다, 호주, 스페인, 네덜란드 학생들도 많고요. 여기 있으면 재미있어요"라며 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했다.

**"한국 친구 사귀기 너무 어려워요"**  
이 곳에서 만난 많은 외국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한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다"라는 것이다. 재목 교포 다니엘 김(외국

어연수필가인 연수생)은 "다른 대학교에서는 외국인 친구들과 한국인 친구가 함께 하는 파티를 열어 독일에서는 내 친구들이 많은 한국 친구를 사귀 수 있었어요 하는데, 왜 외대에는 그런 행사가 없는지 모르겠어요"라며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고 해당 언어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서 유능한 국제 전문 인력으로서의 자질을 보유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우리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것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과 문화 교류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는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들과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말보다 중국말, 일본말을 더 많이 배워요. 한국말 배우러 온 외국친구들 하고 더 많이 어울리니까요" 외대에서 한국 학생들과 교류가 뜸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시사하는 그의 말이었다. "Language Exchange(외국에서 온 학생과 한국 학생과의 언어 교환학습 프로그램)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 못해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면 좋겠는데..." 재일교포 김형화(외

국어연수생)는 연수생(장은)은 어려운 두 말씀을 전했다.

**"우리도 외대 학생이예요"**  
"저는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수강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너무 난감했죠. 그나마 몇 명 있는 한국 친구들이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아질요..." "엄연한 외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들의 섭섭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외국 학생들에게 친절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모르는 것들을 물어보면 귀찮은 듯 대충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일본에서 온 차이카(외국어권 연수생)는 재학중(장)이 서운한 듯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도서관에서 공부할 허려 해도 책상 밑에 얹혀있는 주머니를 책들 때문에 선풍을 쓸 수 없었다는 그녀들의 말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고질병인 '도서관 사석'을 꼬집고 있었다.

"그렇지만 좋은 점도 많아요. 도서관에 책도 많고 무엇보다 전 세계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에선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진 이 곳의 특징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 측과 모든 외대인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외대생들과 함께 하는 스테디, 모두 함께 해요!**  
이 곳에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터디를 계획 한다고 한다. 세 강좌 모두 외국어연수생 가운데서 연수 중인 호주, 일본, 중국인 학생들이 가르치게 된다. 많은 학생들이 와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는 이들의 기대 섞인 말에서 활발한 문화, 언어교류를 갈망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요구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한국 학생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요. 정도 많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도 일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나오키 씨의 밝은 대답이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외국 학생들과

많은 교류를 원하는 학생들이 적극적인 문화 교류를 통해 국제 감각을 기르고 더불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통해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그 날을 기대해 본다.

임선현 기자  
jroworld@hanmail.net



**! ...느낌표가 필요해!**

4p 발간시 4면을 나타낼 연 이들을 공모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oedapress@hanmail.net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우리의 대표 브랜드-삼성

## 해 봅시다!

이글거리는 태양을 향해 외쳐 봅시다.  
"해 보지!" "하야야 말 테다."  
희망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우리 모두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을 냅시다.  
태양을 향해 크게 심호흡 한번하고 외쳐 봅시다.

**"다시 한번, 해 봅시다!"**

- 모집인원 : 총 5,000명 채용
- 지원서 접수 기간 : 2004. 9. 6(월) ~ 9. 13(월) 17:00까지
- 공통지원서류
- 2004년 8월 졸업 및 2005년 2월 졸업 예정인 분
- 지원서사별 요구되는 공인영어 외국어 성적을 보유하신 분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걸박사유가 없는 분
- 전형절차
- 1차 직무적성검사(SSAT) : 2004. 10. 10(일)
- 공통서류 요건 구비자에 한하여 지원회사별로 자격 요건이 상이할 수 있음
- 2차 면접 및 건강진단
- 지원방법 : 삼성 채용 홈페이지(www.dearsamsung.co.kr)를 통한 온라인 지원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삼성 채용 홈페이지 지원자를 위한 삼성 채용 포털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참여회사
- 삼성전자(3150명), 삼성SDI(260명), 삼성전기(340명), 삼성코닝(45명), 삼성SDS(110명)
- 삼성네트웍스(20명), 삼성고양정밀유리(80명), 삼성종합기술원(10명), 삼성정밀(130명)
- 삼성화학(130명), 삼성가드(60명), 삼성증권(40명), 삼성중공업(200명), 삼성테크윈(140명)
- 삼성정밀유리(25명), 삼성조선상사-65명, 건설-85명, 제일모직(6명), 삼성엔지니어링(20명)
- 에스원(30명), 오일신(10명), 제일기적(15명), 에스원(20명)

